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백 용 길 / 보건관리자



늦은 오후, 기관탐방을 위한 선약을 잡기 위해 번호를 누르고 잠시 기다린 후에...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간호협회입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보건관리자 백용길 선생님이지요?’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친절하고 맑은 음성... ‘네! 백용길 보건관리자입니다.’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은 부채꼴 대지의 녹지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늦은 오후였음에도 아직 점심식사 전이라 병원내 로비에서 잠시 기다린 후에 건강관리실로 기관탐방을 떠날 수 있었다. 건강관리실 입구에서 반겨 준 멋진 두 명의 신사들. 최근 점

차 늘어가는 남자 간호사 중에 한 사람인 백용길 보건관리자와 환상의 팀을 이룬 이길훈 안전관리자와 통성명을 나누었다.

병원보건관리자로 전임을 맡기에는 아직 어려운 형편인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안암병원·구로병원·안산병원에 전담보건관리자가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 중 천오백 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안암병원은 건강검진센터업무와 병행하여 보건관리자가 겸직을 하였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2004년 9월부터 전담 선임하여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부서적응을 위해 입사 후 1년 동안 병원의 모든 과를



PRN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백용길 선생님은 본격적인 병원보건관리자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간호사, 행정직, 임상의 등 다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병원보건관리의 경우 같은 주제로 보건관리를 실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의료인도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게 하며, 곳곳에 보건상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산재해 있어 보건관리자의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가운데서도 의료인을 포함한 건강진단 검진율이 98%이상을 상회하고, 병원의 직원 외 청소용역직원과 세탁 대행업체직원의 경우도 건강진단실시 및 보호구 지급에 대하여 관리감독의 책임을 수행하는 등 타 의료기관에 모범이 되어 올해 노동청으로부터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건강관리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으로 팀장님 등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점차적으로 보건관리에 동

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에 핵심은 백용길 보건관리자와 멋진 팀원을 이룬 이길훈 안전관리자가 서로를 보완하며 팀워크를 이루었기에 더 빛이 난다. 이길훈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경력 20년의 베테랑 안전관리자로 백용길 보건관리자와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며 고비마다 서로 격려해가면서 안암병원 건강관리실의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일개 사원이 의료원장의 결재를 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백용길

보건관리자와 이길훈 안전관리자는 서로의 업무를 보완하여 협조함으로써 보건과 안전을 평행으로 연결하여 최소한 2주 이상 걸리던 결재기간을 행정부서 최고실장을 거쳐 병원장결재를 즉각적으로 득하게 되는 소득을 얻게 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항에 대해 서로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해결하는 찰떡궁합을 과시하기도 했다.

안암병원 내에서는 현재 보호구착용과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수칙에 대해서 '페널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회의석상에서 브리핑 후 병원장의 홍보가 있었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된 사례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어려운 점도 있다. 소량이기는 하나 병원이라는 특성상 취급할 수도 있는 발암성물질에 대한 송기마스크의 사용이 어렵고 국소배기시설 설치가 까다로운 점 등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대해 현재 적극적인 방안을 구상하는 중이며, 이에 대해 관련부처에 질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예정

이라 하였다.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지만 결코 쉽지는 않다. 근로자의 안위를 위한 현장 순찰 시 위험요소, 불안전상황 지적에 대해 오히려 직원들이 불이익을 주기 위한 상황으로 오해를 하거나 반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었으나 조급해하지 않으며 인식을 바꾸기 위해 맨투맨 홍보도 마다하지 않기로 했다. 노력은 결실을 맺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직원들의 시선이 점차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하는 사업으로, 한정된 공간이지만 증축 공간을 만들어 헬스클럽을 만들 예정이며, 고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가장 금연이 어려운 공간이라는 병원을 금연지대로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대망을 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일은 서울시내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지속적인 연대 모임을 갖기 위해 발대식을 시작으로 서로의 업무를 브리핑하고 업무를 공유하여 공동의 네트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일들이다.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이미 기존 몇 몇의 병원의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업무를 분류하지 않고 친목뿐만 아니라 고유의 목적을 위해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내 전체 병원을 대상으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전국조직을 결성할 예정이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병원보건안전관리자의 연대조직이 탄력을 받게 되면 전국의 산업장에도 훌륭한 모델이 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안암병원 전담 보건관리자로서 첫 작업은 '병원안전보건기본매뉴얼' 작성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하였다. 완성되면 아마도 병원보건관리에 한 지평을 그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하니 내년도에 꼭 다시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병원보건관리의 미래가 밝게 여겨짐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고집스럽게 좁은 길을 찾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이리라!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건강관리실의 활약을 기대해 보며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전국의 병원보건관리자의 멋진 위상을 기대해 본다.